

19만 그루 편백이 쏟아내는 '힐링 에너지' 황령산 편백숲

지친 심신 씻겨주는 '피톤치드의 바다'

남구의 진산 황령산(427m)은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연제구에 걸쳐있는 도심 속의 힐링 센터이다. 특히 바로 지척에 산을 두고 15년을 살아온 필자에게 아주 만만한 산이다.

별다른 준비 없이 대중 나선 산책길에서 지인이 말했다. “황령산 편백숲이 부산에서 제일 큰 거 알아?” 속으로 ‘뿔 그리 부풀리시나?’ 그러면서도 입으론, “아 그래요?”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상대에 대한 예의니깐. 난 사실 집 귀신이라, 전국의 이름 난 편백림을 다나보지 않아 비교기준도 없고, 평소 우습게(?) 여긴 황령산 편백숲조차 무관심해 규모는커녕 아는 게 거의 없었다. 이런저런 걸 물어다려 준다. 산에 들어선 순간, 초입부터 도심의 공기, 햇살과는 맛이 다르다. 그저 좋다! 좋다! 좋다!

산 속을 중무장하고 오는 이들도 있지만, 난 모자 하나면 충분하다. 산 속의 적당한 햇살과 공기는 온몸으로 느껴줘야 한다. 그게 산에 대한 예의다. 하지만 약수터를 지나, 편백숲에 이르렀을 땐 그 모자마저 무용지물. 땀뻘이 들어선 편백나무의 거대한 그늘 속에선 모든 게 거추장스럽다. 박하향이 촉촉하게 폐부로 들어온다. 흠내음도 좋고, 햇살 하나도 비집고 들어올 틈 없는 울창한 아늑함도 좋다. 여하튼, 부산 최고라는 지인의 말을 확인하고자 마음을 열고 느끼는 순간이다.

‘황령산 편백숲에서 길을 잃다’라는 식상한 시적 표현대로 실제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나무 하나하나 쪽쪽 뻗은 품새는 늘씬한 내 아들을 닮았고 1m 간격으로 잘 맞춘 조림은 군기 살아있는 군인들의

사열 같았다. 어찌 저리 곧고 매끄러울까. 나무계의 랍모 델 감이다. 사진에 담아보겠다고 숲 한가운데 갔을 땐, 어느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득히 보이는 한줄기 빛이 하늘 길을 연상시키고, 찍은 사진들은 굵고 얇은 수직선들이 황금분할원 구상화 같다.



황령산 편백숲은 수종정신을 위해 1976년부터 1981년까지 72ha에 편백나무 19만여 그루가 조성되었다. 수치와 단위로 주는 정보에는 둔하지만 40년 농익은 편백의 수령만은 느낄 수 있었다. 편백나무는 상록침엽수로 높이 40m, 지름 2m까지 성장한다. 히노끼, 노송이라고도 하며, 재질과 향이 좋아 궁궐, 사찰 등 고급 원자재로 애용된다. 그보다 소중한 효능이라면 피톤치드의 제왕이라는 것. 피톤치드는 수목이 해충이나 미생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휘발성 향균 물질. 사람에게도 각종 항암리지, 항아토피 등 면역력에 작용한다. 피톤치드는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스트레스 해소, 간 기능 개선, 뇌의 알파파를 생성시켜 명상, 집중력을 증진시킨다.

피톤치드 외에도 숲의 다양한 물리적 환경요소 이룰테면 경관, 소리, 향기, 음이온, 온도, 습도 등이 상승 작용해 삼림 치유라는 자연 요법으로 자리 잡았다. 인간의 면역증진과 심신을 안정시키는 삼림욕, 그 중 편백숲이 단연 으뜸이다. 초여름에서 늦가을, 또 오전에 농도가 최고치란다.

중간 중간 쉼터에는 근사한 평상과 정자,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잘 정비되어 있어 올 한 여름에도 더할 나위 없는 피서지가 될 것 같다. 평상 위 발령 누워서 보는 나뭇가지 사이의 하늘이 아련하다. 해바라기하기 위해 바지런히 올라 갔구나 싶다. 인간도 한 곳만 해바라기 하고 살기 힘든데.

편백숲을 뒤로 하고 내려오면서 지인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물, 공기의 소중함을 잊고 살듯 교양 황령산의 정기와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가깝다는 이유로 거만하게 소중함을 몰랐다. 근대 집 값 안 오른다고 투정만 했으니...

여름이 짙어 간다. 무렵고 일상이 힘겨운 황령산 편백숲으로 가서 힐링 하자.

최현숙(수필가)

남구의 진산 황령산의 편백숲은 그야말로 도심속 힐링 에너지의 보고다. 사진=전소진 주무관



그랜드자연요양병원 동춘서커스단 공연

그랜드자연요양병원(병원장 나용승)은 지난달 20일 국내 유일의 동춘서커스단을 초청해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문화 공연을 가졌다. 병원 잔디광장에서 환우,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여명이 서커스단원들이 기계체조와 곡예, 무용, 마술 등의 기예를 선보여 박수 갈채를 받았다. 동춘서커스단은 서영춘, 배상룡을 배출한 89년 전통의 국내 유일의 대형 서커스단이다.

8월27일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남구문화원은 오는 8월 27일(수) 오후 7시 남구청 구민광장에서 남

구소년소녀합창단, 오륙도무용단, 초청 가수(윤수일, 소리새 등)가 공연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연금융단지 가볼만한 전시관 2곳

'100억 큐브' 등 돈 박물관

■ 한국은행 부산본부 화폐전시관

한국은행 부산본부 1층에 자리잡은 화폐 전시관(약 200㎡)은 고대의 물품 화폐로부터 오늘날의 현용화폐에 이르기까지 국내 및 세계 각국의 다양한 아름다운 화폐와 기념주화들이 전시된 '돈 박물관'이다. 화폐의 변천 과정을 통해 한국은행과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기능과 발자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들의 흥미를 위해 각종 체험시설이 눈길을 끈다. 화폐와 금융 등 경제에 관한 딱딱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

미완성 동전을 근대 '주화 압인기'에 넣고 힘껏 돌리면 동전이 똑딱 만들어지는



체험시설과 자신의 얼굴을 찍어 원하는 화폐에 올리면 화폐 안의 위인 대신 관람객 얼굴이 찍히니 만들어지는 '나도 화폐 속 주인공' 코너가 가장 인기가 많다. 이밖에 보기만 해도 가슴 떨리는 만원권 100만 장으로 만든 '100억 원 큐브' 등 볼거리가 많다. 관람 오전 10~오후 5시, 무료, 주말·공휴일 휴관.

로봇 공연에 관람객 환호

■ 기술보증기금 기술전시관

중소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KIBO) 사옥 1층에 있는 기술전시관은 일종의 과학전시실이다. 820.67㎡(약 250평)로 규모가 넓고 과학과 기술을 소재로 한 전시물도 흥미로워 학생 과학 체험장으로 인기가 많다.

'질병극복 프로젝트' 코너는 생명공학기술(BT)을 응용한 신약개발과 치료, CSI 수사대 등을 게임 형태의 영상으로 구성했다. 4D 입체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4D 영상관과 나노 기술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작은 것의 혁명' 코너도 흥미롭다. IT기술을 활용한 텔레메틱스, 원격진료 등 미래의 도시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도시의 내



일' 코너는 미래 도시를 옮겨 놓았다. 이 밖에 '읽는 컴퓨터'인 웨어러블 컴퓨터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 에필로그 코너, 한국 수시대 등을 게임 형태의 영상으로 구성한 프롤로그 코너 등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는 로봇공연은 관람객의 인기를 독차지 하고 있다. 관람 오전 10~오후 5시, 무료, 주말·공휴일 휴관.

조을홍 기자

단전 호흡, 기체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

성인반 입학안내

주간반 ▷주부조리반

야간반 ▷주부조리반, 일반인반, 직장인반

“고등학교 학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성인이나 청소년”

- 2년만에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 무시험으로 전원 대학진학
- 각종조리사자격증 취득(한식, 양식, 일식, 중식, 제과제빵, 바리스타자격증)
- 직장인을 위한 반 개설
- 출퇴근시간 지장 없습니다
- 직업상 어려움이 있는 분은 상담
- 기초생활 수급자는 학비 무료입니다
- 문의전화 523-0209, 010-3915-5633

부산경호고등학교

고품격 장례문화!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내부모 형제처럼...”



배도성

BHS 수영한서병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15 (평안동) T.(051) 751-1860~1

BHS 동래한서병원 장례식장

(구.동래백병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21 (부곡동) T.(051) 582-1041(오전 불려 장사함)

DEM 동의의료원 장례식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62 (양정2동 산45-1) T.(051) 866-3757 / 850-8577

기장병원 장례식장 T.(051) 724-1024

품격높은 예식홀, 넓은 주차시설 완비!

남구청 대강당 웨딩홀

신청접수
-남구청 재무과 5층(☎607-4157)
-월~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남구는 저비용 고품격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웨딩 문화 사업으로 구청대강당을 예식장으로 꾸며 운영중입니다. 본관 1층에 200석규모로 폐백실, 신부대기실, 265명의 넓은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용직적: 부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단체인이면 누구나
- 이용시간: 토요일 14~16시, 일요일 11시~16시 (매시간 단위로 사용가능)
- 신청방법: 결혼당사자나 혼주가 방문하여 접수
- 사 용 료: 14만원 (선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예식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폭죽, 비누방울, 드라이아이스, 케이크 절단 등 연출은 금지하며 예식취소시 사용예정일 7일전 전액환불하며 1일전 50% 환불 가능합니다.

하이엔방수

시공은 꼼꼼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 우레탄 탄성 도막 방수
- 수용성 탄성 도막방수
- 시공후 A/S 3년 콜

상담 051-635-7556 / 010-3563-0600